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2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의문] 습습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지위보다
성공보다
집안보다
아파트보다
자동차보다
명함보다
승리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문재인



사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

문재인이 출연한 <힐링캠프> 보셨나요?
거기에서 그는 자전거를 못 탄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자전거를 가질 수도, 배울 수도,
탈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제도에서 태어난 피난민의 아들. 친구의 도시락 뚜껑에
강냉이죽을 받아먹고 자랄 만큼 가난했지만, 가난이 그를 강하게 키웠습니다.



유치장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유신 독재정부와 맞서고 또 전두환과 맞서다 유치장에 갇혔고,
유치장 속에서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차석 졸업했지만, 시위전력 때문에 판사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대형 로펌이 근사한 대우로 그를 스카우트 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마다하고 인권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운명을 만난 사람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선시켰으니 책임져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열 개나 빼야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권교체의 희망이 된 사람

이명박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권교체의 희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 봄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100만 국민경선을 통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새시대의

눈물과 한숨의 시대를 끝낼 사람

이명박 정부 5년은 국민고통시대였습니다.

역사를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도 후퇴했습니다.

문재인이 정권교체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을 것입니다.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함께 할 사람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동행하는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차별 없는 균형발전,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편 가르기와 정치보복은 더는 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공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사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나라,

힘없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제 3기 민주정부입니다.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능하고 따뜻한 민주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



첫대통령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비교할수록 대통령은 문재인

귀족후보인가? 서민후보인가?

누군가는 유신이라는 독재의 성에서 공주 같은 삶을 누릴 때,
문재인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고 인권 변호를 하며 평생을 약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서민은 문재인입니다.

낡은 정치인가? 새정치인가?

낡은 정치는 재벌과 특권층을 비호하지만, 새정치는 민생경제와 복지를 챙깁니다.
문재인의 새정치는 반칙과 특권을 떨쳐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인가? 겸손한 대통령인가?

더 이상 불통과 군림의 리더십으로는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출마선언문을 국민과 함께 쓴 문재인. 국민의 뜻에서 대통령의 길을 찾는
소통과 동행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도 권력의 유산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지만 먼지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시절 청탁을 우려해 단 한 번도 동문들을 만나지 않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서민의 편 약자의 편



● 일자리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간 단축

진짜 경제민주화와 가짜 경제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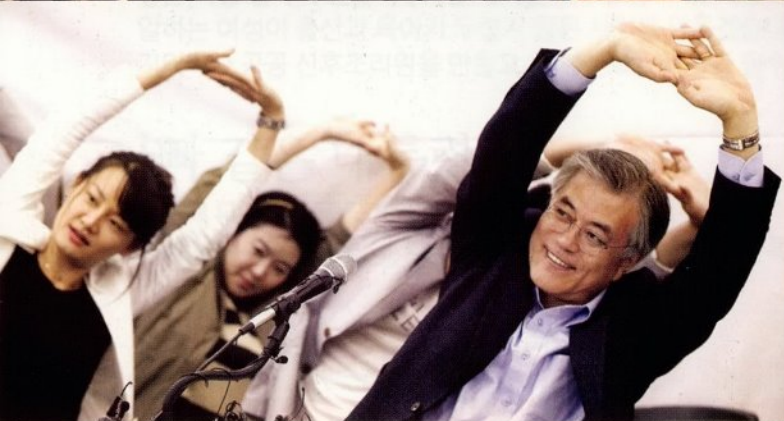
국민은 압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다 슬그머니 뒤통무니를 빼버렸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부터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복지는 투자이자 성장동력입니다. 문재인은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뛰어넘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는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매일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 ● 의료비 본인부담 연 100만원 상한제 ●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여성 고용률 60% 달성 ● 0~5세 무상보육 실현 ● 국공립어린이집 2배 확대 ● 반값등록금

사랑



큰아들 같은 대통령

어떤 병에 걸려도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하겠습니다.

(간병비, MRI, 초음파도 건강보험으로 보장)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여성을 먼저 챙기는 대통령

좋은 여성 일자리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고령산모들의 추가 필수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아빠 같은 대통령

0~5세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 내후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사람



육군 병장 출신 문재인

얼마나 군대 안 가는 정치인이 많으면, 특전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것만으로 화제가 될까요.
남다른 깊은 애국심, 그것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튼튼한 안보,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놓고 있었습니다.
군을 정예강군으로 만들고 사병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내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보와 평화, 문재인이 있습니다



임기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대할 것입니다.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6.15, 10.4 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북한을 발판으로 대륙경제로 진출하여 우리 경제의 새 활로를 열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만나면 키가 1미터로 줄어드는 대통령

새 정치의 약속

안철수 후보의 헌신으로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정치를 바꾸라는, 정권을 바꾸라는 뜨거운 명령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편 가르지 않는 정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님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경남 거제 출생(함경남도 피난민의 아들) • 부산 남항초, 경남중·고, 경희대 법률학과 졸업
- 육군 병장(제1공수특전여단) 만기제대 • 부산·경남 민변 대표 •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 (재) 노무현재단 이사장 • (현)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이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전화 : 1577-7667

인쇄 / (주)일진커뮤니케이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8-9번지 / 02)2277-4424

www.moonjaein.com twitter.com/moonriver365 facebook.com/moonbyun1

문재인 **2**